

‘국토 셀’ 특집 시리즈 ②

국토 품격 제고를 위한 “국토 셀” 특성화 모델: 경주 양동마을 사례

김선희(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외 답사팀

- G20 이후 높아진 국격을 유지·향상시키고, 저출산 고령화 및 문화 르네상스 등 국토를 둘러싼 메가트렌드와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국토 창출이 필요함
 - 품격 있는 국토는 방방곡곡 저마다 가지고 있는 국토자원을 활용하여 두루 살기 좋고 특화된 경쟁력을 가져서 국토 곳곳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선진 국토를 의미
 - 국토의 작은 지역 하나하나가 경쟁력 있는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가치와 미래를 창출하여 품격 있는 국토를 만드는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의 추진이 필요
-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은 개별 국토 셀이 저마다의 속성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하게 발전하고 이러한 국토 셀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국토발전모형
 - 국토 셀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는 국토자원의 분석을 통해 특화자원을 선정하고, 다양한 소프트 파워를 함양하여 선정된 특화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함

《《 경주 양동마을 국토 셀 모델의 특징과 시사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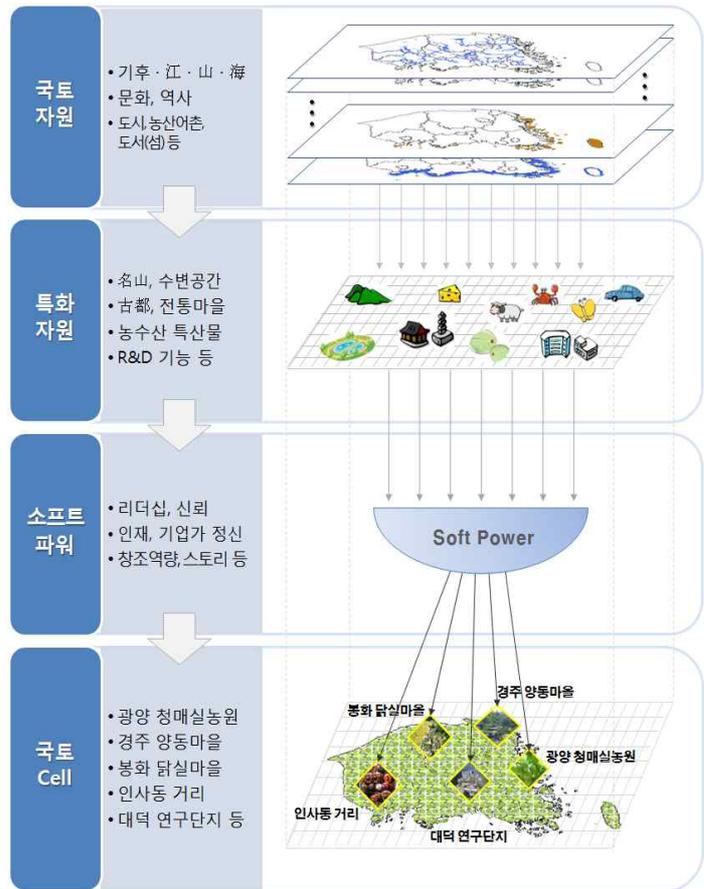
- 경주 양동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마을로 하회마을과 함께 지난 2010년 9월 제34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국토 품격을 제고하는 국토 셀의 하나임
- 세계가 동질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토의 특성을 고려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와 정주양식, 경관 등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s)를 갖는 경주 양동마을을 한국의 전통마을 셀로 특성화하여 과거와 현재의 삶의 터전이 미래로 이어지는 국토창조전략이 필요
- 중앙정부는 전통마을 국토 셀을 다양하게 발굴·보전하여 국토축, 도시권 등의 국토공간과 조화·연계하여 국토모자이크를 창출하여 국토품격을 제고해야 함

I. 국토 품격과 국토 셀 특성화 모델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의 개념

- 국토 셀은 국토를 이루는 기본 구성요소이며, 국토는 다양한 기능과 크기를 가진 국토 셀의 조합이라 할 수 있음
-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은 개별 국토 셀이 저마다의 속성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하게 발전하고 이러한 국토 셀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국토발전모형
 - 국토 셀 특성화 모델에서는 도시 및 SOC 위주의 국토발전과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활용하는 도농 병행적 국토발전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국토 곳곳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품격 있는 국토로 만들게 함
-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을 통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소지역 단위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음
 -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은 소지역 단위의 미시적 발전을 추구하므로 거점, 권역, 발전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거시적 국토발전을 보완함
 -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은 농산어촌 및 도시, 강·산·바다 등 실제 국민이 일상 및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국토 자체를 대상으로 함
 - 택지, 산업단지 등 도시적 토지이용 위주의 국토발전 보완과 인구 감소시대의 지역발전 수요에 대응한 국토관리를 할 수 있음

[그림 1] 국토 셀의 구성요소 및 형성과정



II.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의 이론적 틀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의 기본방향 및 성공요인

-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은 국토 셀 하나하나가 탁월한 특화자원(excellence)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diversity) 국토 전체적으로 조화(harmony)를 이루어 국토 품격을 제고하는 국토발전모형

[표 1]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의 기본방향 및 성공요인

기본방향		성공요인
국토 셀별 국토자원의 특화를 통한 명품화	excellence	특화자원: 名山, 수변공간, 섬, 농수산 특산물, 연구개발기능, 古都, 마을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국토 셀의 다양한 발전	diversity	소프트 파워: 리더십, 신뢰, 창조역량, 비즈니스마인드, 핵심인재,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명품 국토 셀의 협력과 보안을 통한 조화	harmony	협력과 보완: 거버넌스, 상생발전, 네트워크, 제도적 지원 등

※ 국토 셀: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자원이 소프트 파워와 결합하여 형성된 품격 있는 국민 일상·경제생활 공간
 ※ 소프트 파워: 문화(한류 등), 창조 등 軟실력(또는 軟권력), 국토와 관련해서는 인문·사회·경제적 국토 기반

국토 셀의 형성과정

- 지역이 가지는 국토자원의 분석을 통한 특화자원 선정
 - 특화자원은 다양한 국토의 문화·역사·자연 및 산업·관광·경관 등 국토자원 중에서 전통마을 등 전국적으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의미
- 특화자원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 파워의 함양 및 결합
 - 특화자원이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열정적 리더십, 지역의 창조역량, 핵심인재, 특화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마케팅, 스토리텔링 등 소프트 파워가 지역 내에서 충분하게 함양되어 특화자원 개발과 결합되어야 함
- 국토 셀 간의 상호 협력과 보안을 통해 국토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모자이크 형성
 - 국토 셀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화자원들 간 상호 보안을 강화하여 국토 전체가 고유한 특색을 다양하게 가지되,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자이크를 형성해야 함

III. 국토 셀의 사례: 경주 양동마을

1. 경주 양동마을: 품격있는 정주공간

● 양동마을의 개요

- 양동마을은 60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농경사회 씨족마을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전형적인 양반 집성촌이며, 2010년 9월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현재 133세대 374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현존하는 세계최대의 양반 집성촌임

- 경주시에서 형산강을 따라 동북방향으로 16km에 위치하는 배산임수의 문전옥답을 둔 전형적인 한국형 마을

- 형산강, 안락천, 칠평천이 합세하는 세 물머리에 입지
- 설창산과 성주산을 주산과 안산으로 하여 물자형세(勿字形勢)의 구릉지를 따라 아름다운 한옥들이 261호 규모로 건설되어 현재까지 151호가 현존함

[그림 2] 마을의 물자형세(勿字形勢)



- 경주 양동마을은 조선 유교문화 전통을 고려한 독특한 정주형식, 건축양식과 경관 등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환기시킨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 탁월한 가치를 지님

[그림 3] 양동마을 전경 및 주요 건축물



▲서백당



▲무침당



▲양동마을 전경

2. 양동마을의 국토셀 특징

첫째, 전통마을의 지역고유성 및 잠재력

- 양동마을은 건물 배치와 건축양식, 생산기반 등에 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줌

① 구릉지 자연지형을 활용한 입체적 정주공간 배치:

낮은 구릉지와 골짜기의 勿자형 지세를 활용한 주거지 배치를 통해 어디에서나 일조권을 확보하고 안산인 성주산을 조망하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성과 심미성이 탁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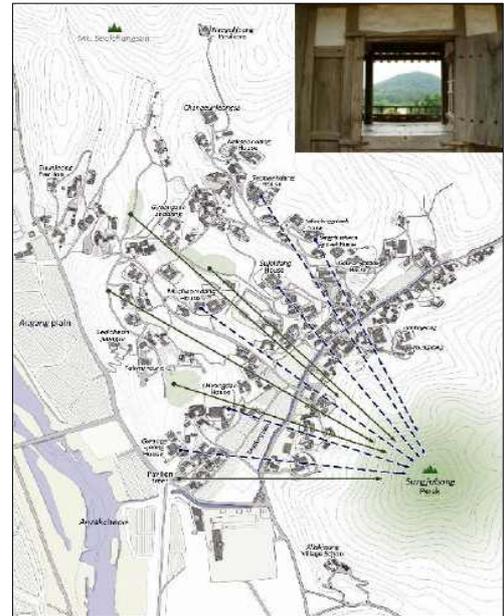
② 한반도의 지리기후 조건에 맞춘 건축양식:

온돌과 마루의 결합과 자연재료를 활용한 대들보, 석가래 등 독특한 한옥양식 완성함

③ 자급자족형 생산기반 형성:

개별 건축물의 둘레에는 마당과 채전을 두고 마을 앞에 생산기반인 안강평야를 두어 정주기반과 경제기반을 한 마을에서 자급자족하도록 형성함

[그림 4] 마을 어디에서나 바라볼 수 있는 성주산



둘째, 리더십, 파트너, 네트워크

- 종법과 종가의 리더십으로 유지되는 유교적 계층구조

- 마을주민 전체가 600여 년을 도도히 이어온 종법(宗法)과 선조에 대한 경외심과 자긍심 등을 함께 공유하고 자부심을 갖는 등 양동마을 고유의 지역리더십이 탁월함
- 종손들 스스로 종가의 당호(堂號)를 통해 인내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조상의 덕과 업에 누가 됨을 피하여 행하는 행동을 실천하고 계승해옴

- 파트너 및 네트워크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 경상북도와 경주시, 마을이장, 지역주민과 문중, 양동초등학교 동문, 전문가 그룹 등이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셋째, 외부 지원 요소

■ 중앙부처의 지원과 보호

- 문화재보호법(1963년) 등을 토대로 무첨당, 향단, 관가정, 독락당 등을 보물로 지정
- 기와 및 초가지붕의 정기적 교체,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건물의 이전 또는 철거, 안길 정비, 마을 저지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 펌프장 설치 등 보수정비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비전

- 경상북도: 양동마을 조사보고서(1979년) 발간, 영화·드라마 제작 관련업체 및 인사들을 초청하여 로케이션 촬영지 홍보를 위한 지역관광 설명회 등 팸투어 실시(2009년)
- 경주시: 2003년부터 경주지역 유교문화와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육성, 경주역사문화 도시 조성계획(2005~2034년) 수립, 문화재과 양동마을관리담당 직원배치
- 양동마을: 유교문화자원 정비, 전통마을 경관 보전, 체험 프로그램 개발

■ UNESCO 세계유산센터,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하회·양동마을 보존협의회, 전문가 등

-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학술용역 연구수행, 신청서 작성 작업, 워크숍, 협력체계 정립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국내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등 개최
- 양동마을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s)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마련, 개별 건물의 진정성 유지를 위한 복원기술과 경관관리, 마을보존계획,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관광계획 등 품격유지를 위한 관리방법 등 지원 및 교육

넷째, 트렌드

■ 관광의 트렌드가 휴양과 레저에서 역사문화 이벤트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세계유산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10년 말 현재, 151개국 911개의 명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각 국가 간, 지방정부 간의 경쟁이 가열되어가는 가운데, 경주 양동마을은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마을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조선의 정주형식과 건축양식 등 한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 제공

3. 양동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과제

● 살아있는 생활 유산(Living Heritage)의 보전과 계승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어 600여 년 동안 보전·계승해 오고 있는 양동마을의 가치를 양동마을답게 보전·발전시키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함
 -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으로 양동마을 주민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체계적인 세계유산 보전 및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계획 수립·실행

- 마을 주민과 문중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적 마을계획’에 기반을 둔 보전관리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필요
 - 경주시 ‘양동마을과’를 신설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문화재 보전, 지역개발을 위한 통합행정, 주민참여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한 유기적 소통체계 구축 필요
- 공무원, 전문가, 주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현장 워크숍과 교육을 실시하여 양동의 가치 배양과 보전 방안, 관광 및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세계유산 보전과 활용을 위한 현지화 방안 모색 필요

● ‘양동마을형’ 전통한옥마을의 유지관리

- 경주 양동마을을 지키는 모임 결성, 양동마을의 주요 보물과 문화재보전재단의 설치 등을 통한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세계유산 양동마을의 진정성과 보편적 가치, 전통생활문화 등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한국형 전통마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추진

[그림 5] 국토순례회 경주양동마을 답사



※ 국토순례회: 국토의 보물을 찾아 공부하고 체험하는 국토연구원 좋은 직장만들기(GWP: Great Work Place)의 일환으로 조직된 모임

4. 한국의 전통마을 셀의 보전과 현대적 계승을 위한 시사점

● 일조와 조망을 존중한 마을공간 배치 등 국토지형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 해석 철학과 기법 승계

- 선조들의 국토관·지혜 등을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으로 삼아 21세기 IT, CT(Culture Technology) 등 다양한 소프트 파워를 결합
- 강·산과 사람이 조화된 전원 공간 창조, 산과 생활공간이 일체된 공간조성 기법 개발
 - 구릉지 지형을 적극 활용한 주거지 배치를 통해 마을 어디서나 일조권이 확보되고 자연친화적 조망을 가능하게 하여 심미적 가치 창출
- 한국의 지리기후조건 등을 고려한 온돌, 마루 등의 건축양식에 녹색성장 기술 등을 결합하여 한국형 그린한옥의 정립 및 확대 보급
 - 온돌과 마루의 장점을 결합한 한옥표준화 작업 추진
 - 에너지절약형 그린한옥가이드라인 정비를 통한 한국형 저탄소 녹색성장 한옥 보급

● 다양한 국토 셀의 조화를 통한 고품격 국토 모자이크 창출

- 경주 양동마을 국토 셀에 대한 글로벌 장소마케팅을 통한 품격 있는 新국토공간 창조
 - 경북도, 경주시, 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공동으로 새로운 ‘협력적 마을 보전관리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추진
-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국토 셀 외에 영암 구림마을, 봉화 답실마을, 아산의 외암마을 등 전국 곳곳에서 면면히 보전·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전통마을을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연계하여 국토 모자이크 창출

‘국토 셀’ 특성화 모델 구축을 위한 국토연구원 경주 양동마을 답사팀

-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김선희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shkim@krihs.re.kr, 031-380-0280)
-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백경진 연구원(kjpaek@krihs.re.kr, 031-380-0193)
- 국토연구원 국토순례회